

연구논문

전통제주 돌담의 문화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강동언·박성진·손일삼 교수

전통제주 돌담의 문화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 우도지역을 중심으로 -

강동언·박성진·손일삼(제주대학교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제주관광은 자연경관 위주의 주유형 관광에 역점을 두어왔으며, 독특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문화관광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섬 고유의 생활문화, 향토문화 등을 활용한 이야기 요소를 가미하는 등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제주의 독특한 이미지와 고유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많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살아온 제주인의 삶의 모습은 자연과 동화된 형태로 독특한 문화와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은 제주 관광의 품격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제주를 삼다의 섬으로 얘기하듯이 화산섬 제주에서 돌은 제주인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집을 짓고,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 목축을 하기 위해, 강한 바람과 해풍을 막기 위해 돌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등 돌은 제주인의 생존과 관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생활의 편리성 추구 등을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돌담 등 돌과 관련된 제주의 고유한 자원들이 단지 이제는 기능이 필요없다는 이유 등으로 쉽게 사라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돌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주의 돌담과 관련하여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우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돌담이 갖는 문화적인 이미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더불어 관광자원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오늘날 제주는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돌담이 갖는 자연스럽고 독특한 매력이 돌담의 유실과 함께 그 전통성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연구의 대상지인 제주시 우도지역의 돌담 문화는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전통 돌담 문화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잘 보존되어진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도의 전통적인 돌담, 그리고 돌담과 관련된 향토문화 보존과 더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도 지역의 전반적인 역사, 문화, 사회, 경제, 관광요인 및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돌담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전통

돌담 문화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연구의 방법은 제주의 전통 돌담의 문화적 가치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우도지역에서 돌담과 관련된 기록 및 구술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전통돌담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도 돌담만이 갖는 우수성을 고찰하였으며, 현지 조사를 통하여 돌담과 관련한 조형적 우수성, 경제적 가치, 농경문화 등에 대한 조명을 통해 체험학습 등과 같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전통돌담의 일반적 특성

1. 우도의 지리적 특성

우도는 제주도 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도8경, 동양유일의 홍조단괴해빈 해수욕장, 고요하고 완만한 수심의 하고수동해수욕장, 검멀레, 우도봉(소머리오름), 비양도(섬속의 섬) 등 천혜의 자연절경을 바탕으로 섬속의 섬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지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형적으로 북위 33°29′~33°31′, 동경 126°58′~126°58′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 길이 약 3.8km, 동서 2.5km로, 섬전체의 면적은 약 6.18km²이며, 평탄지(0~5°)가 전체 면적의 65.8%를 차지하고 있고, 완경사(5~15°)지역도 27%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지질은 90% 이상이 현무암이고, 기존 취락지 및 경작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자연환경 상태를 유지하는 경관이 수려하며, 섬 전체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시 우도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4개리(서광리, 천진리, 조일리, 오봉리)와 12개 자연마을과 2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면서, 최근 관광산업의 발전 추세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우도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경작지가 66.88%를 차지하고 있고, 취락지 5.49%, 초지 9.11%, 산림지 2.61%, 기타가 15.9%로 이용되고 있다. 섬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농지로서 2005년 농림부에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관보존직불제 시범사업을 도내에서는 처음 시행함으로써 농촌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돌담의 유형별 분포상황

본 조사에서는 전통돌담의 관광자원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도의 대표적인 돌담의 종류와 기능성, 조형적인 부분들을 연구 기록하고, 돌담의 유형별 분포상황과 민속 문화재의 특징 및 기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도지역의 민속 문화재와 돌담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향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홍보 및 지원활동 등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각의 입지조건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현장 답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돌담문화의 유형별 분포상황

(1) 밭 담

밭의 경계를 구분하고, 해풍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역할로서 경작지 둘레에 돌을 쌓거나 바닷가의 암반을 활용하여 해안과 주거지, 농지를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폭과 높이 등 담의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경작지 경계 돌담



(그림 2) 우도봉에서 바라본 밭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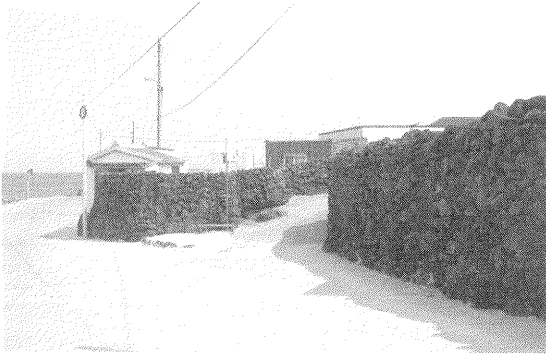
우도의 밭담은 섬지역의 입지조건상 해안선을 따라 있는 해안도로를 경계로 섬 지역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지역여건에 따라 너비 1m 안팎이 되도록 양쪽으로 큰 돌을 쌓고 자갈돌로 가운데를 메우는 겹담으로 구축한 후 또 다시 외담을 쌓은 형태이다.

동서남북의 해안도로와 경계를 이루는 우도의 밭담의 높이는 대체적으로 2m 넘게 형성되어 해안도로에서 섬 중심부의 조망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일부지역에서 건물이나 인접 농로 변에서는, 부분적으로 섬 내부의 밭담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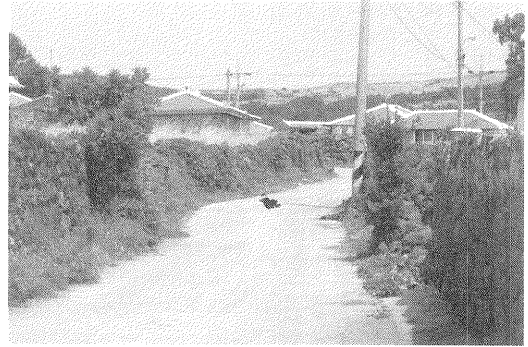
해안선에 위치한 밭담의 형태는 생존을 위한 주민의 삶의 방식으로서 해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높게 축조되어진 점이 일반적인 제주의 밭담과 그 양식에서 차이가 있다. 우도의 밭담은 해안선에 인접할수록 기후의 변화로 인해 훼손이 있으나 그에 따른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올 래

외부시선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공간을 가져다주고 주거지의 영역성, 경계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도의 올래는 현재도 그 형태를 유지보존하고 있는 상태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옥구조의 변형과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 돌담의 축조방식과 무관하게 현대식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그 특색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 해안가 주거지 돌담



(그림 4) 마을주거지 돌담

(3) 방사탑

방사탑은 외부로부터의 액운을 막기 위해 마을의 허한 곳에 주술적 의미로서 잡석을 이용하여 탑을 쌓고 원뿔형, 사다리꼴형 등 형태가 다양하다. 우도의 방사탑은 민속자료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해안도로를 따라 동천진동 1기, 주홍동 2기, 하고수동 2기, 영일동 2기, 총 7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바다로부터의 액운을 막기 위한 것이 공통적인 이유이다.



(그림 5) 동천진동 방사탑



(그림 6) 하고수동 방사탑

하고수동과 상고수동의 경우 음양을 구분하고 있고, 동천진동의 경우는 바다경계를 뜻한다고 하여서 특이한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 해안도로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방사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안내판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또한 주변 정리와 탑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4) 망 대

우도의 망대는 제주도에 있는 연대들과 흡사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비양동과 전흘동에 위치하고 있다. 용도상으로 연대처럼 관찰하고 신호로써 적을 알리던 것과는 달리 모두 우도의 북쪽에 있어서 우리나라 남해안 쪽을 관찰하게 되어있다. 이 망대가 쌓아진 시기는 제주도의

4·3사건(1948) 당시 우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연대와는 분명히 다르나 근대의 4·3 관련 유적으로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또한 석축과 흡사한 점이 많으므로 연대의 석축양식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속칭‘답다니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망대가 있음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완만한 경사를 이룬 바닷가의 암반위에 평면 사각, 정면 사다리꼴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석조석은 넓적한 현무암을 이용하고 있고, 축조방식은 제주도의 성과 같은 방식인데 옹형으로 쌓아져 있다.



(그림 7) 전홀동 망대



(그림 8) 비양동 망대

(5) 산 담

마소의 방목으로 인한 분묘의 훼손을 막고 봉분을 보호할 목적에서 쌓은 산담은 대부분이 밭 한가운데나 우도봉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봉분주변에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돌담을 쌓은 전통장례의 분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통 돌담의 축조방식과는 달리 현대식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그 특색이 사라지고 있다.

(6) 원 담

해안가에서 육지로 깊숙이 들어오는 곳에 인공적으로 돌담을 둘러막아 놓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에 조수의 힘을 활용하여 밀물 따라 물려든 고기떼들이 썰물때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가둬놓고 잡을 수 있게 장치한 곳을 ‘원’또는 ‘원담’이라 한다. 이러한 어로 방식으로 형성된 돌담의 모양은 크게 직선형과 곡선형 두 가지가 있으며, 단면은 직삼각형과 직사각형이 있다.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은 직선형 또는 지그재그형으로 돌담을 만들었으며, 그 단면 모양은 거의 직사각형이다. 파도의 영향이 곧바로 미치는 우도의 ‘원’의 돌담은 대부분 곡선형이고 그 단면의 모양은 직삼각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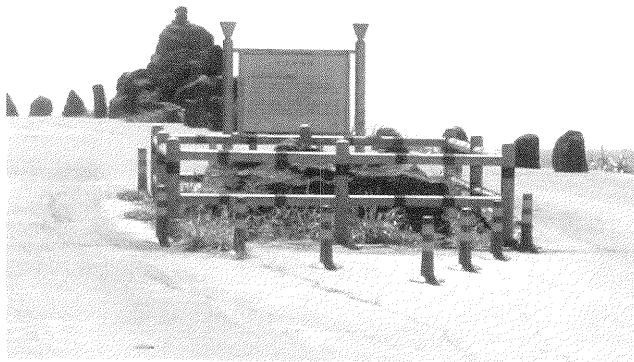


(그림 9) 전흘동 원담

(7) 우도지석묘

우도면 동천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이다. 지석묘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돌멘, 고인돌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돌배라는 전설도 깃들여져 있다. 외부의 모양은 시신을 안치하도록 판자모양의 돌을 사용하여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돌을 올려 완성했다. 제주도에서는 150여기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석묘는 대한민국의 본토와 달리 축조시기가 늦고, 형태도 특이하며, 재료도 모두 현무암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석묘는 본토에서 제주를 거쳐 일본 구주지방에 까지 퍼져 있다.



(그림 10) 동천진동 지석묘

3. 현지조사 및 분석

우도 돌담을 크게 구분하면 주거지의 올래와 축담, 농경지의 발담과 해안도로에 인접한 돌담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러한 돌담 중에서도 해안도로에 인접한 우도의 돌담은 독특한 돌담문화의 양식으로 구축되어 졌다.

현지조사에서는 우도의 해안선을 따라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대체적으로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개발지역에는 무분별하게 돌담의 원형이 훼손된 곳도 있다.

해안도로는 우도의 지형적 요건으로 인하여 우도봉 주위의 대표적인 수려한 경관인 주간명월과 지두청사 등과 서쪽의 일출봉이 보이는 돌칸이 언덕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이어져 검멀레(검은색을 띠고 있는 모래의 의미) 인근까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우도의 해안도로는 우도의 돌담과 돌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관광요소로서 그 활용도가 높다.

해안도로 인접 돌담의 구축형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겹담의 형태로 250cm 내외의 높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외담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마치 성벽처럼 쌓여진 해안도로 변 돌담의 형성은 내부의 발담의 조망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나선형의 긴 형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또한 안쪽의 발담의 경계는 외담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150cm 내외의 높이로 쌓아졌으며, 돌과 돌 사이의 공간 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돌담 사이에 농로가 있어 섬 중심부 안쪽의 조망이 가능한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우도의 해안도로 주변 돌담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해안도로 안쪽의 발담과 바깥쪽의 돌무더기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림 11) 해안도로 주변 돌담(하고수동)



(그림 12) 경작지 농로

4. 우도 돌담의 미학적 우수성

우도의 전통돌담은 척박한 풍토의 자연환경에서 주민의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형성

되었으며, 사고와 물질(해녀들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로부터 자연발생적이고 자기 목적인 공간의 기능성과, 상징적인 선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생활공간에 대한 의사소통의 개념에서 기하학적인 선의 심상이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로 파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돌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내면의 감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돌담을 바라보고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돌담의 우수성과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선조로부터 이어져온 문화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미 사회적인 기능성을 초월한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경향의 흐름에 동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의가 있는 우수성이 있는 것이다.

우도돌담은 섬의 형태적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으나 일관적이지 않아 그 모양이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미적 관점에서 높은 산지나 구릉지 및 하늘에서 바라본 밭담의 형태는 그 모양이 일정한 규칙보다는 기하학적이고 변화가 있어 직선 및 곡선의 절묘한 변화로 경계되어져 나타난 면과의 조화가 돋보인다. 여기에 계절마다 재배되는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색상의 변화에 따른 돌담의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더해져 돌담의 선과 색상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인 안정과 독특한 기능성을 갖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림 13) 우도봉에서 바라본 돌담풍경



(그림 14) 해안도로 주변 돌담

우도의 돌담을 모양이나 재질로 구분한다면 크게 해안선에 근접한 해안도로 주변의 발담의 경계와 중심부 내의 돌담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는 동일한 제주에서도 독특한 돌담의 형태이다.

일반적인 제주도의 돌담은 돌 표면이 거칠고 다공질인 현무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우도의 해안가 돌담은 그 표면이 매끄럽고 돌과 돌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또한, 그 높이에 있어 일반적인 돌담의 높이보다 높게 축조되어 돌담의 본래 목적 보다는 마치 성담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규모로 축조되어 있어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해안가에서 가까운 곳에 농작물이 재배되어야 하는 점에서 해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밀도와 높이로 축조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해안가에 있는 돌들이 파도에 의해 표면이 매끄럽게 변화된 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기능적인 면에서 축조되어진 우도의 돌담은 현대에 와서 다양한 시각으로 그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다각도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관심이 증대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특한 경관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익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문화관광 개발의 한 부분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5. 우도 돌담의 보존방안

우도의 산업화로 인한 특징 중 하나의 현상이 바로 자연경관과 지역문화의 훼손이다. 이러한 현상은 생계와 편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얻어지는 생활수준의 상승이 우도의 독특한 돌담문화의 훼손을 급격하게 야기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도의 중요한 돌담 문화 유형의 모든 문화유산은 조상들의 삶의 증거로서 후세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물려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돌담, 그리고 돌담문화를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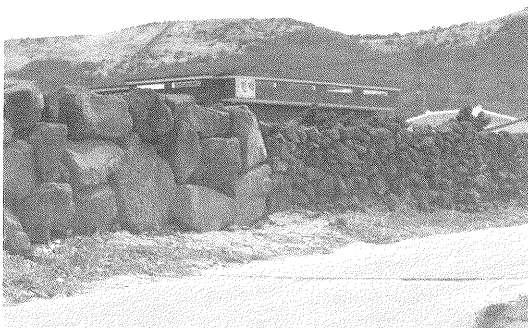
적으로 보존·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료화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를 위한 주변 시설물의 현대화로 인해 우도의 독특한 문화 경관 요소는 그 특색을 점차 잃어가고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을 위한 편의시설과 발전계획의 진행방향은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문화요소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통시설물의 이용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와 인식개선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도지역의 전통돌담의 경관관리 보존은 돌담자체의 정비뿐만 아니라 돌담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미적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건축물의 형태와 색, 높이, 간판 등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유지의 돌담에 관한 정비 또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돌담 및 돌담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익적 기반이 약할 때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돌담 및 돌담문화를 이용한 문화자원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민속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돌 문화와 전통 돌담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관보존직불제 대상자원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농가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등록문화재¹⁾로 등록하는 등 긴급보호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 15) 주거지 돌담상태



(그림 16) 해안가 돌담상태

1) 2001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 42조'에 등록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관련된 '시행규칙 제 35조의 2'에는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을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것"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Ⅲ. 전통돌담의 관광자원 활용 및 개발방안

1. 우도돌담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우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위주로 하는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적 관점에서 우도의 전통돌담은 우도의 돌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우도의 해안도로 주변 돌담은 우도의 아름다운 문화적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도돌담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화와 시각적 아름다움에 관한 내용을 조명하여 우도돌담의 가치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 조성 및 서비스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적이고, 체험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도돌담의 생활환경 생태가 지닌 문화·역사, 인간적인 편의성, 쾌적성 등은 복합적인 생활 관광지로서 낮과 밤의 경관 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도의 돌담은 자연발생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섬 중심부 농경문화 중심의 돌담에서는 해안도로의 돌담과의 주변 공간과의 체계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공간연출이 필요하다.

우도의 돌담은 기능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있고, 최근에는 안전성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주거지와 농경지, 해안선으로 구분한다면 지역과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풍부한 경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각 분야의 예술가 등의 지원과 노력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돌담을 활용한 낮과 밤의 공간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도 전통돌담의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돌담을 연계한 문화관광 이벤트를 개발한다.

우도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마을축제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돌담 쌓기 등의 이벤트의 조성이 필요하다.

돌담을 주제로 한 우도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돌담 8경등의 경관요소를 개발하고 정비한다.

2) 돌담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한다.

우도 지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의 홍보책자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체와 박물관과 연계된 돌담에 관한 전시 프로그램, 영상물 등을 활용한다. 지역단체 및 교육기관을 활용한 전시장소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도록 장려한다.

외국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 및 안내판을 조성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 문화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특별한 전문요원의 구성 외에도 우도주민 전체가 언제든지 돌 문

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 3) 우도의 시각적인 경관관광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험은 해녀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불턱, 돌담 축조 및 탑 쌓기, 원담을 활용한 수산물채취 등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4) 우도전체를 가족중심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지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일정한 지역의 빈집이나 장소를 활용하여 옛 초가의 원형을 되살리고 직·간접적인 관광객의 거주를 유도할 주민자치의 공동체적 주거지를 구축한다. 또한 전통식사 및 우도의 농수산물의 양식을 제공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가족단위의 특별한 생활관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 5) 우도의 일정지역에 문화예술 구역을 조성하여 목적이 있는 방문과 자연경관과의 복합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한다.

돌담을 형상화한 기념비적인 조형물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물질문명의 소산인 많은 현대적인 재질의 돌담을 활용하여 다양한 용도의 적합한 개성 있는 돌담의 리듬감 있는 연출이 필요하다.

- 6) 우도중심부의 도보여행을 장려하여 돌담의 정취를 느끼면서 관람할 수 있는 산책코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도지역의 마을 만들기 구축의 한 방법으로 오래 코스와 중심부 발담의 돌담길을 정비하여 문화와 정서를 위한 산책코스를 개발하고 관리한다.

시간과 계절에 따른 변화와 리듬감 있는 연출을 통해 해안가 쪽 이외의 돌담길을 산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봄~여름에는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하고, 가을~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하여 정서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연출이 되어야 한다.

자동차보다는 보행자의 편안함과 안전성, 즐거움을 도모하기 위한 거리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걷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각 공간에서는 지역의 특수한 문화상품을 구입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7) 자연과 공존하는 조명연출이 필요하다.

우도는 낮 중심의 경관관광 위주이고, 밤의 자연경관에 대한 연출은 등한시 되어왔다. 밤이 되면 섬 전역이 대체적으로 어둡다. 따라서 이색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연출되어야 한다. 밤이 되면 어두운 덩어리로 변하는 돌담의 경우 조명연출을 함으로써 돌담이 가지고 있는 양감과 선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답답한 공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돌담이 갖고 있는 유연한 곡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감을 높여야 한다. 또한 돌담자체의 색채를 이용하여 조명연출을 한다면 주변의 상황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경관효과를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 우도전체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섬 전체 돌담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거나 시설물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미관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안 돌담과 발담을 통한 통합적인 전망을 고려한 시설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9) 우도의 관광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해상교통 및 육상교통과 관계된 수송수단과 주변정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2. 개발 및 사업추진방안

1)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도의 특별한 경관 문화지구를 조성한다.

문화지구의 조성은 문화환경을 보호 육성하고 관광특성을 창출하기 위한 개발방식으로 우도지역에 문화지구를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이러한 문화지구 조성 계획의 수립과 자연발생적 삶의 문화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우도의 돌담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은 우선적으로 우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특별자치도, 돌담관련 전문가 등이 문화경관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개선과 소득증대, 복지향상 등의 삶의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실행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적으로 공공의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보다는 협상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민간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발전적인 사업요소를 집행하여 실행착오를 방지한다.

우도지역의 돌담은 독특한 경관과 문화요소 자체가 새롭고 신비로운 요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문화와 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문화와 경제 모두를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도의 주민의식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보는 것 보다는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적 경관의 원형훼손을 최소화하는 경관정비와 시설설비가 필수적이다. 우도지역의 돌담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집행하여 경관 정비와 기반시설 및 운영체계를 모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책임을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전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주민자치와 심의기관 및 각 단체 협의회가 필요하며, 개발과정에 참여한 자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핵심 기관들이 개발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해야 한다.

IV. 결 론

우도지역의 돌담을 연계한 관광자원 활용의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관광자원으로는 경관위주의 관광시설이나 서비스 업종만으로는 여가를 위한 관광객 층으로 한정될 것이다. 때문에 우도의 생활문화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관광자원개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우도의 돌담의 현황과 개선점은 단기간에는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정책적인 노력과 연구에 따라 개선의 가능성은 밝다고 본다. 우도 지역의 돌담을 활용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도 전통돌담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도 돌담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우도돌담 문화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다각도의 발전요소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우도 돌담문화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문화적 이벤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도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성이 어우러진 관광문화의 독창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문화의 발전과 연계되는 우도문화의 정체성과 이벤트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우도 돌담문화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 관광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며, 우도돌담 문화를 활용한 사업추진에 지역민의 복지향상에도 연관되어야 한다.

넷째, 우도돌담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자원의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우도돌담 문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 담당 요원을 충원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다섯째, 우도돌담 문화의 경제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상호협력 및 보완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특별자치도 및 읍·면 지역주민간의 연계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우도 돌담문화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적인 계획의 실행은 주민의 참여와 관심속에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유지되도록 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주민의 복지와 문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순두외(2007), 「島誌牛」, 牛島誌島誌編纂委員會

박경훈(1997), “도시의 조형환경을 위한 조명연출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광인(2004), “제주관광개발의 실태 및 전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9집2호.

이상영(2006), “제주 전통돌담의 가치평가 및 보존방안”, 농촌계획, 제12권 제2호, 한국농촌계획학회.

이상영(2007), “제주 전통돌담의 유지보수에 관한 의식조사”, 농촌계획, 제13권 제1호, 한국농촌계획학회.

이흥재(1997), “문화시설의 지역 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2007), 「도서지역 발전계획 추자도·우도」, 제주특별자치도.

